

# 일선학교, 남북정상회담 TV 생중계한다

### 광주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322개교 대상 정상회담 자습시청·계기교육 등 주문 공문 발송

18일 광주학생 20만여 명이 자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청하며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한다. 학교들은 이번 회담과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계기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 누리집에 접속해 평화 기원 릴레이에 글 남기기, 나의 평화지수 알아보기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장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8일부터 28일까지 3차 회담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며 각급 학교는 학교장 지도하에 남북정상회담 TV시청, 계기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게 된다.

교육 자료는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http://www.koreasummit.kr/>)에 올라온 카드뉴스, 통일부 통일교육원 계기교육 자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날 시청한 정상회담 모습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소망,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실천 가능한 내용에 대해 글쓰기를 하고 정상회담 누리집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수확여행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남북 학생 교류,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

한 학생대표단 초청 등 교육부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휴전선을 넘어 동북아, 더 나아가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를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을 초청해 '남북대륙철도' 특강을

진행하고, 4일엔 광주학생독립운동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제90주년 남북학생 교류 공동행사를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1일엔 북한주민접촉에 관한 통일부 승인을 거쳐 24일 북측 대남교류기구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제안을 담은 교육감 서신과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광주 대다수 학교들은 정상회담을 생방송으로 시청한 바 있다.

당시 화정중학교 2학년 권 모 학생은 "그

냥 태어났을 때부터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회담을 한다고 하니 약간 얼떨떨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다"며 "제가 커서 저의 딸이나 아들들에게는 (정상회담이)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가 (현재만이) 아니고, 기차타고 러시아도 여행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로"고 말했다.

또한 2학년 유 모 학생은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후손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교육청은 17일 관내 전체 학교와 기관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공문을 발송해 남북정상회담 TV시청, 계기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사진은 통일연구학교 지정된 광주 지한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TV로 시청하는 학생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광주	☀️	18~28
나주	☀️	16~28
장성	☀️	15~27
담양	☀️	16~28
화순	☀️	16~28
영광	☀️	16~27
함평	☀️	17~28
목포	☀️	19~26
무안	☀️	17~27
영암	☀️	16~28
진도	☀️	18~26
신안	☀️	18~27
순천	☀️	19~28
광양	☀️	19~28
구례	☀️	16~28
곡성	☀️	15~28
완도	☀️	19~28
강진	☀️	16~28
장흥	☀️	16~28
해남	☀️	16~28
여수	☀️	21~26
보성	☀️	15~27

☀️ 해돋이 06:17    🌙 달뜨기 14:26  
 🌅 해질 18:36    🌑 달지기 -:-

## 광주전남 임금체불 1만명 ↑·378억원

### 지난해 대비 피해자 2천100여명·체불액 103억원 늘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피해를 본 광주와 전남 근로자 수가 1만명을 넘고, 금액은 37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광주노동청 담당 지역 근로자는 1만 535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37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자 수는 2천180명(26.1%), 체불금액은 103억원(37.4%)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천872명·148억 9천만원)과 건설업(2천322명·56억 5천 400만원), 도·소매업(1천597명·34억 8천 800만원)이

체불 규모가 컸다.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635명·16억 9천 100만원), 운수장고 및 통신업(370명·12억 1천 600만원)도 체불이 발생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 5인 미만 사업장 3천 441명·85억 3천 300만원 △ 5~29인 사업장 2천 823명·128억 3천 200만원 △ 30~99인 사업장 1천 770명·85억 8천 200만원 △ 100인 이상 사업장 771명·15억 9천 900만원 등이다.

노동청은 체불액 가운데 179억원에 대해서는 지도 해결로 청산했다.

199억원의 해당 사업주들을 처벌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박승아 기자

## 광주 동구 잇단 집단 건축 민원 '몸살'

### 전영원 구의원 "건축 심의·허가 실명제 도입해야"

광주 동구에서 최근 건축 관련 집단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건축 심의·허가 과정에 담당 직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 건축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고층화를 막아달라거나 대형교회 신축 반대, 오피스텔 건축소음 민원 등이 몰물 듯이 쏟아지고 있다.

소태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주거 지역의 '종 상향'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곳에 일부에서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명동 주민들은 대형교회 신축을 막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6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

하며 주저나 등을 이유로 교회 신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기동 주민들은 오피스텔 건축공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에서는 56기구가 거주하는 높이 40m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가 한 대밖에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안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따고 있는 집단 건축 민원 원인을 분석한 전영원 광주 동구의원은 그 해결책으

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반복되는 집단 건축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민원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건축 종료 후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3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사진도 첨부해 현장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구의회 5분 발언에서 "건축 심의와 허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 허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ghszkz@

## 전남 소방, 2022년까지 인력 2천명 증원

전남 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 인력 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109명, 지난 상반기 275명, 하반기 112명을 임용해 현재 2천 628명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16년 783명에서 올해 625명으로 크게 개

선됐다.

소방본부는 2천명을 더 늘려 4천 500여명 수준이 된다면 1인당 담당 인구는 43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인수도 현재 3천 432명에서 2천 513명으로 낮아져 구급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싹틔줄  
생강을 살립시다